



유로존, 재정위기 심화와 국채 투자 감소의 악순환 지속 전망

이정환 선임연구원

- 스페인의 국채 금리는 ECB의 국채 매입 시사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6%대를 넘어섬.
 - 스페인 경제상황 악화, 재정긴축에 대한 신뢰 부족 등으로 10년 만기 스페인 국채 금리는 6%를 넘어섰으며, 4월 첫째 주 ECB의 스페인 국채 매입 시사에 따른 금리 상승 억제 효과는 소멸된 것으로 보임.
 - 스페인은 총 31억 8,000만 유로 규모의 1년 및 1년 6개월 만기 단기 국채 발행에 성공하였으나 발행금리가 크게 상승하여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임.
 - 1년 및 1년 6개월 만기 금리는 각각 2.623%와 3.11%로 직전 입찰(3월 20일)보다 1.205%p, 1.399%p 높아짐.

- Financial Times는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로 스페인뿐 아니라 프랑스 등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가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상당 기간 외면당할 것으로 전망함.
 -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유로존 재정위기가 심화된 지난 2년간 스페인, 이탈리아, 프랑스 등에서 1,000억 유로 규모의 국채 투자 자금이 이탈하였다고 추정함.
 - 스페인 중앙은행에 따르면 스페인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2010년 12월 44%에서 2012년 1월 말 33%로 감소하였음.
 - 프랑스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2010년 71%에서 2011년 65%로 감소하였고, 이탈리아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2010년 52%에서 2011년 9월 49%로 감소하였다고 각국 중앙은행이 발표함.
 - 미연준은 2011년 말부터 해외 국채 투자의 대부분이 독일과 네덜란드에 집중되었다고 언급함.
 - 또한, 이러한 국채 투자 자금의 이탈은 ECB의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(LTRO) 운용 시기에도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짐.

- ECB의 개입으로 은행의 유동성 문제는 다소 해소되었으나 투자 리스크가 여전히 높고 유로존 경제에 대한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이 이탈한 것으로 파악됨.

■ 주요 시장분석 기관들은 이들 지역에 대한 국채 투자 자금 이탈 추세가 스페인의 재정위기 심화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함.

- 인베스틱 자산운용은 해외 투자자들이 스페인을 포함한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국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힘.
- Financial Times는 주요 국부펀드는 물론이고 세계적 사모펀드인 BlackRock, Pimco 등도 유로존 국채 투자를 외면할 것이라고 보도함.
 - Bloomberg는 Paulson & Co 헤지펀드가 유럽 국채 매도를 결정하였다고 보도함.
- 이르면 5월 초 무디스가 유럽 16개국 114개 은행에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채 투자 자금 이탈은 가속될 것으로 보임.

(Financial Times 4/15, Bloomberg 4/17)